

■ 2026 새해설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변화 주도·주민과 약속 실현에 행정 역량 집중”

민생경제회복·주민안전 5가지 정책 최우선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도로 개설 등 인프라 투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주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2026년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한파에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지켜온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5가지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85곳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남구 동행카드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또 소상공인 회망대출 및 특례보증, 마케팅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분로 토요야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백운광장에는 또 하나의 소비공간이



자 광장 활성화의 성공 퍼즐인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조성을 완료해 지역 상권 핵심 거점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한다.

대촌의 국가·지방산단에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혁신지구로 변모하는 송암산단은 문화·디지털을 결합한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거점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약속은 문화가 일상이 되고, 여가가

삶이 되는 남구 건설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 정체성을 강화한다.

백운광장과 양립동, 사직동, 별령2동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활기반 개선을 통

시에 이루는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주민들의 여기와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남구 국민체육센터 개관과 덕남 힐링숲 캠핑장 및 빛고을농촌테

마공원 아영장 등 도심 속 힐링 공간도

신속하게 문을 열 예정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블룸 플랫폼 구

축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보건·의료·돌봄·주거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행복한 복지 7979센터를 중심으로 위기구호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장애인 무료 순환버스와 1000원 택시 등 이동 약자 교통복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1인 가구까지 촘촘히 보살핌 예정이다.

또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심도시’ 건설에 나선다.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와 광주전 출입 통제 차단기

추가 설치,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으로 안전도시 기반을 다지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월 서문대로~봉선 대화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전월·봉선·효천·주월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 실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장 톡데이와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효자동·월산동·백운2동·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한 통일열차 운행, 시민 통일 강사 평화도슨트 운영 등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김병내 청장은 “새해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신뢰에 보답하겠

다”며 “21만 주민과 함께 민생을 지키고, 남구의 미래 성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 해온 노력이 성과로 찾아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원자재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서구, ‘안전·민생·자살예방’ 공무원 증원

6급이하 6명…재난안전상황실 등 배치

광주 서구가 안전·민생경제·자살예방 등 필수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늘린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안전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에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0명에서 1046명으로 6명 늘어는 게 핵심이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30명을 유지한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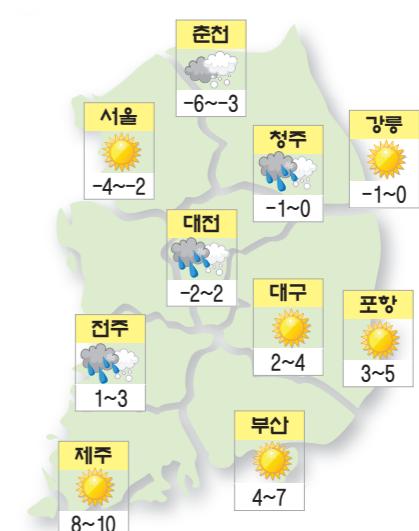
승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곶감이 익어가는 계절 12일 장성군 북면 한 대봉강 농가에서 곶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봉시로 만드는 장성곶감은 큰 일교차와 바람이 많은 천혜의 지역적 조건에서 자연 건조돼 맛이 좋은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곶감은 비타민A와 C가 풍부한 겨울철 건강보조식품으로 고혈압 예방과 속취 해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날씨

해물 07:41 일풀 02:52
해진 17:41 일진 13:00



광주		1~5
목포		3~4
여수		4~6
순천		2~6
구례		0~4
광주		2~6
완도		4~7
목포		5~7
전남		2~7
진도		3~7
목포	밀물 (고)	09:54 / 21:35
여수	썰물 (저)	02:28 / 15:55
목포	밀물 (고)	05:31 / 16:47
여수	썰물 (저)	11:33 / 23:08

상습 차량털이 40대 구속

만년필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쇠고랑행.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상습털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일대 이 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5대에 침입해 현금 등 9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 별도의 기물 파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최근 일감이 줄면서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재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 임영진 기자 looks@

운전면허 갱신 산정 기준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일이 10월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2일부터 2027년 4월1일’로 변경된다.

다면,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적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함께 적용한다.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공단 누리집(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구, 충장로 구역 넓혀 ‘판’ 키운다

황금동 일부 상권활성화구역 편입…‘홍콩 골목’ 성과
야간·체류형상권 전환 가속도…관광·문화 연계 강화

과 밤이 모두 살아 있는 상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관광·문화 연계 전략도 강화된다.

광주관광공사와 동구문화관광재단 등과 협력해 ‘충장골목여행’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충장미술백화점’ 사업 대상지도 충장로 5가에서 4가까지 넓힌다. 광주극장과 인근 로컬 브랜드를 연계한 식음료(F&B) 입점도 유도해 충장로만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관계자는 “충장로온페스타와 로컬 브랜딩 사업을 통해 충장로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사업 구역 확장은 인근 상권으로 효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으로 대 폭넓렸다. 동 구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지 속적으로 빌려줄 빙 접포를 해소하고, 신 규상인 유입을 촉진한 다는 계획이다.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충장로 안길 대를 아간 관광과 소비 의 중심축으로 키워, 낮 일대 접포를 리모델링해 선술집과 포차, 낮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민국 최고의 법을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현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쳤으므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